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은행

미국 은행 2Q26 실적:

리테일 बैं킹의 안정적 성장에 CIB의 고성장 추가

- 2Q에도 미국 은행들은 견조한 실적 개선세를 시현. 리테일 बैं킹의 안정적 성장에 높은 증시 변동성 등으로 인한 CIB부문 고성장이 실적 개선을 견인.
- 다만,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제고로는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CIB 부문 실적 개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된 원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들의 26년 컨센서스는 여전히 견조한 실적 개선을 시사. 즉, 매크로 리스크 완화 시 펀더멘털 및 주주환원 개선 여력에 초점 필요.

WHAT'S THE STORY?

미국 주요 은행 2Q 실적 컨센서스 큰 폭 상회: 미국 주요 은행들은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의 합산 기준 2Q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7.2% 상회하였고, 이익 및 EPS는 각각 18.5% 및 19.2% 상회. 특히, 이들 은행의 합산 기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또한 가파른 증가세를 시현. 2Q 중 이례 요인인 Visa 지분 매각이익을 제외해도 실적 개선세는 견조한 것으로 추산.

실적 내용도 양호 – 사이클 개선을 시사: 은행들의 2Q 실적은 내용도 양호. 1) 대출 및 수신 성장률이 견조한 가운데, 2) NIM이 방어되며 이자이익 성장 (+9.9% y-y)을 견인하였고, 3) CIB 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4) 매크로 우려 확대에도 불구하고, Credit cost 사이클의 Peak out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생각.

리테일뱅크 안정적 성장 위에 CIB의 고성장: CIB의 고성장으로 은행들의 이익 믹스가 변화. 리테일뱅크와 CIB 부문의 이익 비중은 1년전 5:5에서 2Q26 4:6으로 변화.

자본비용 하락 둔화 – ROE 급등 및 견조한 주주환원 지속: 5개 은행들의 CET-1 비율은 전분기 대비 평균 7bp 하락. 높은 주주환원을 및 RWA의 고성장(8.1% y-y)이 이어졌으나, 일회성 요인 및 CIB 실적 호조로 ROE가 15%까지 급등한 것이 주요.

이슈 1. CIB중심 실적 개선 지속 가능성에 집중된 질문 – 하반기 전망은 유보적으로 언급: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은 CIB 실적 개선의 지속 가능성. 이에 대해 은행들의 최고 경영진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 JP Morgan은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지만 지속 기간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Citigroup은 ROTCE 연간 가이드언스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이슈 2. AI와 은행 – 신규 사업 기회. 다만, 관련 혜택은 고객에게: AI 관련 영향에 대해 주요 은행들은 1) AI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의 대규모 자금 수요는 은행들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 2) 비용 절감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언급. 다만, 수익성 개선 효과의 경우, 중국에는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될 것임을 강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I. 미국 주요 은행 2Q26 실적 Review

- 리테일 बैं킹의 안정적 성장에 CIB의 고성장 추가

미국 주요 은행 2Q 실적 컨센서스 큰 폭 상회

미국 주요 은행들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2Q 실적을 발표.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JP Morgan, Bank of America, Citi Group, Wells Fargo, PNC Financial)의 합산 기준 2Q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7.2% 상회하였고, 이익 및 EPS는 각각 18.5% 및 19.2% 상회.

참고로, JP Morgan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Visa 지분 매각 관련 이익 (세전 기준 46억 달러 / 세후 기준 34억 달러)에 기인.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JP Morgan의 매출액 및 순이익은 4.0% 및 7.0% 상회하는 수준이고, 5개 은행의 합산 기준 매출과 순이익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폭은 3.8% 및 9.3%로 여전히 양호한 실적.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전분기는 물론 전년동기대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즉, 은행업의 개선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개선 속도 또한 일부 제고되었음에 초점이 필요. 참고로, 이들 은행의 합산 기준 1) 매출액은 18.8% y-y, 8.2% q-q 증가하였고, 2) 당기순이익은 33.7% y-y, 17.5% q-q 급증하였음. JP Morgan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은 각각 15.0% 및 23.3% y-y로 여전히 견조한 개선 폭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

은행들의 2Q 실적은 내용적인 측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1) 대출 및 수신 성장률이 견조한 가운데, 2) NIM 방어가 이자이익 성장을 견인하였고, 3) 높은 시장 변동성은 CIB 부문의 가파른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4)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이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매크로 우려 불구, 총 충당금 적립액은 전분기는 물론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Credit cost 사이클의 Peak out에 대한 기대를 강화한 것으로 생각.

은행별 매출액 vs 컨센서스

(백만 달러)	매출액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57,347	50,790	12.9
Bank of America	31,558	30,814	2.4
Citigroup	24,766	23,695	4.5
Wells Fargo	22,622	21,793	3.8
PNC Financial	6,875	6,446	6.7
합계	143,168	133,538	7.2
JP Morgan 일회성 제외 기준 합계	138,618	133,538	3.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순이익 vs 컨센서스

(백만 달러)	순이익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21,155	16,546	27.9
Bank of America	9,074	8,516	6.5
Citigroup	5,831	5,043	15.6
Wells Fargo	6,407	5,543	15.6
PNC Financial	2,040	1,917	6.4
합계	44,507	37,566	18.5
JP Morgan 일회성 제외 기준 합계	41,064	37,566	9.3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EPS vs 컨센서스

(달러)	EPS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7.70	5.72	34.6
Bank of America	1.21	1.13	7.4
Citigroup	3.15	2.74	15.1
Wells Fargo	2.00	1.71	16.9
PNC Financial	4.81	4.53	6.1
합계	18.87	15.83	19.2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매출액

(백만 달러)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50,200	42,654	42,768	45,310	44,912	46,427	45,798	49,836	57,347	15.1	27.7
Bank of America	26,305	26,213	26,475	28,247	27,443	29,040	28,367	30,272	31,558	4.2	15.0
Citigroup	20,139	20,209	19,581	21,596	21,668	22,090	19,871	24,633	24,766	0.5	14.3
Wells Fargo	20,689	20,366	20,378	20,149	20,822	21,436	21,292	21,446	22,622	5.5	8.6
PNC Financial	5,411	5,432	5,567	5,452	5,661	5,915	6,071	6,165	6,875	11.5	21.4
합계	122,744	114,874	114,769	120,754	120,506	124,908	121,399	132,352	143,168	8.2	18.8
JP Morgan 일회성 제외 기준 합계									138,618	4.7	15.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당기순이익

(백만 달러)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18,149	12,898	14,005	14,643	14,987	14,393	13,025	16,494	21,155	28.3	41.2
Bank of America	6,803	6,711	6,806	7,360	7,170	8,332	7,647	8,584	9,074	5.7	26.6
Citigroup	3,217	3,238	2,856	4,064	4,019	3,752	2,471	5,785	5,831	0.8	45.1
Wells Fargo	4,910	5,114	5,079	4,894	5,494	5,589	5,361	5,253	6,407	22.0	16.6
PNC Financial	1,477	1,490	1,610	1,481	1,627	1,808	2,020	1,760	2,040	15.9	25.4
합계	34,556	29,451	30,356	32,442	33,297	33,874	30,524	37,876	44,507	17.5	33.7
JP Morgan 일회성 제외 기준 합계									41,064	8.4	23.3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1. NII (순이자이익) 증가 속도 여전히 견조 – 일부 은행 연간 전망 상향

은행들의 순이자이익은 2Q 중 9.9% y-y 증가하며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 이에 일부 은행들은 당초 제시했던 올해 이자이익 증가 가이드언스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JP Morgan이 1,030억 달러에서 1,055억 달러로 2.4% 상향하였고, BofA도 올해 NII 증가 속도를 연초 제시한 5~7%에서 6~8%의 상단에 가까울 것으로 가이드언스를 상향.

은행별 순이자이익

(백만 달러)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22,746	23,405	23,350	23,273	23,209	23,966	24,995	25,366	25,511	0.6	9.9
Bank of America	13,702	13,967	14,359	14,443	14,670	15,233	15,750	15,745	15,997	1.6	9.0
Citigroup	13,493	13,362	13,733	14,012	15,175	14,940	15,665	15,741	17,125	8.8	12.9
Wells Fargo	11,923	11,690	11,836	11,495	11,708	11,950	12,331	12,096	12,317	1.8	5.2
PNC Financial	3,302	3,410	3,523	3,476	3,555	3,648	3,731	3,961	4,107	3.7	15.5
합계	65,166	65,834	66,801	66,699	68,317	69,737	72,472	72,909	75,057	2.9	9.9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25년 NII 및 26년 가이던스

(십억 달러)	25년 이자이익	24년 이자이익	YoY (%)	26년 가이던스	YoY (%)
JP Morgan	95.4	92.6	3.1	105.5	10.6
Bank of America	60.1	56.1	7.2	64.9	8.0
Citigroup	59.8	54.1	10.5	63.4	6.0
Wells Fargo	47.5	47.7	(0.4)	50.0	5.3
PNC Financial	14.4	13.5	6.7	16.5	14.5
합계	277.2	263.9	5.0	300.3	8.3

참고: 26년 가이던스는 최대값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시사점 2. NIM은 차별화 – 트레이딩 사업 부문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주요

2Q 중 은행들의 NIM은 다소 방향성이 다른 모습을 보였음. BofA와 Citi, PNC 모두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JP Morgan과 Wells Fargo는 일부 하락한 것이 대표적. 다만, JP Morgan과 Wells Fargo의 NIM 하락은 2Q 중 Markets 부문, 즉 자본시장 관련 자금 운용 비중 확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에 기인. 참고로, Markets 부문의 경우, 트레이딩 사업으로 마진이 얇은 만큼, NIM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 하지만, 이들 은행은 2Q 중 자본시장 내 높은 변동성 등을 기회로 간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NIM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NII, 즉 이자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생각. 이는 JP Morgan의 운용금리가 10bp 하락한 것에 드러남.

BofA도 같은 전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NIM은 오히려 소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자산 Re-pricing 효과에 기인. 동사는 당초 저금리 채권이 자산 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점이 낮은 수익성 및 금리 인상기의 장부가치 훼손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었음. 하지만, 이들 자산의 만기가 도래하여 차환되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금리의 자산으로 교체되며 NIM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 더 나아가, 동사는 NIM 가이던스와 관련 2.3~2.4% 수준까지도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제시.

다만, Wells Fargo의 경우, 조달금리가 4bp 상승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 이는 1) 예금 증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 더 늘어나며 향후 자산 성장 과정에서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2) 동사는 NIM 가이던스로 3Q 중 추가 하락 후 안정화 전망을 제시했으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

한편, 은행들의 예금 잔액은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 5대 은행 기준 예금 잔액은 8.5% y-y, 2.5% q-q 증가하였음. 은행으로의 수신 유입은 전분기와 유사하게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 성장 한도 규제가 해제된 Wells Fargo의 수신은 14.5% y-y, 4.4% q-q 성장하며 자산 성장 속도가 전분기대비 추가적으로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

은행별 NIM, 운용 금리, 조달 금리 추이

(%)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bps)	YoY (bps)
JP Morgan											
NIM	2.62	2.58	2.61	2.58	2.43	2.45	2.54	2.50	2.40	(10)	(3)
운용 금리	5.57	5.55	5.31	5.19	5.04	5.05	4.95	4.83	4.75	(8)	(29)
조달 금리	3.67	3.68	3.36	3.17	3.15	3.13	2.94	2.82	2.82	0	(33)
Bank of America											
NIM	1.93	1.92	1.97	1.99	1.94	2.01	2.08	2.07	2.08	1	14
운용 금리	5.15	5.14	4.91	4.67	4.60	4.64	4.50	4.38	4.39	1	(21)
조달 금리	4.20	4.17	3.82	3.47	3.43	3.40	3.17	3.00	3.00	0	(43)
Citigroup											
NIM	2.41	2.33	2.42	2.47	2.51	2.40	2.49	2.46	2.54	8	3
운용 금리	6.42	6.36	6.22	5.92	5.93	5.89	5.81	5.55	5.58	3	(35)
조달 금리	4.96	4.99	4.64	4.26	4.17	4.26	4.06	3.75	3.75	0	(42)
Wells Fargo											
NIM	2.75	2.67	2.70	2.67	2.68	2.61	2.60	2.47	2.43	(4)	(25)
운용 금리	5.25	5.24	5.02	4.85	4.87	4.88	4.75	4.58	4.58	0	(29)
조달 금리	3.31	3.43	3.12	2.92	2.89	2.94	2.76	2.66	2.70	4	(19)
PNC Financial											
NIM	2.60	2.64	2.75	2.78	2.80	2.79	2.84	2.95	2.96	1	16
운용 금리	5.13	5.25	5.04	4.90	4.93	4.99	4.86	4.80	4.82	2	(11)
조달 금리	3.26	3.34	2.95	2.72	2.74	2.81	2.59	2.37	2.39	2	(35)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조달 금리

(%)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bps)	YoY (bps)
JP Morgan	3.67	3.68	3.36	3.17	3.15	3.13	2.94	2.82	2.82	0	(33)
Bank of America	4.20	4.17	3.82	3.47	3.43	3.40	3.17	3.00	3.00	0	(43)
Citigroup	4.96	4.99	4.64	4.26	4.17	4.26	4.06	3.75	3.75	0	(42)
Wells Fargo	3.31	3.43	3.12	2.92	2.89	2.94	2.76	2.66	2.7	4	(19)
PNC Financial	3.26	3.34	2.95	2.72	2.74	2.81	2.59	2.37	2.39	2	(35)
평균	3.88	3.92	3.58	3.31	3.28	3.31	3.10	2.92	2.93	1	(34)
%p q-q	0.05	0.04	(0.34)	(0.27)	(0.03)	0.03	(0.20)	(0.18)	0.01		

참고: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이자부예금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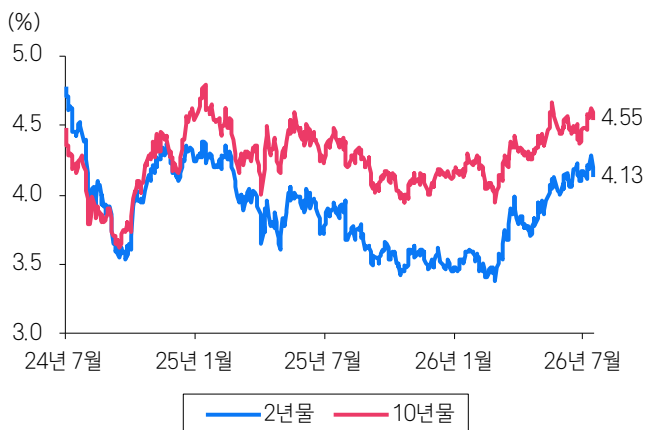
(십억 달러)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1,722.9	1,749.4	1,793.3	1,842.9	1,902.3	1,914.0	1,949.0	1,991.6	2,047.8	2.8	7.6
Bank of America	1,396.3	1,413.7	1,445.7	1,448.0	1,460.0	1,478.7	1,491.6	1,490.6	1,489.7	(0.1)	2.0
Citigroup	1,108.7	1,109.1	1,116.5	1,103.8	1,139.0	1,180.4	1,218.3	1,236.3	1,295.2	4.8	13.7
Wells Fargo	1,006.8	986.2	984.4	972.9	970.7	984.2	1,020.5	1,064.0	1,111.2	4.4	14.5
PNC Financial	320.9	326.3	329.1	328.3	329.8	339.1	344.7	359.3	353.5	(1.6)	7.2
합계	5,555.6	5,584.6	5,669.1	5,695.8	5,801.8	5,896.3	6,024.1	6,141.8	6,297.4	2.5	8.5

참고: 분기 평균 잔액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편,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의 현재 NII 가이드선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일부 은행들은 현재 시장 컨센서스 상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가정하고 있다고 언급. 다만,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연간 NIM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답변. 이는 1) 현재 컨센서스 상 금리 인상 시기인 9월 전후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가운데, 2) 금리 인상이 NIM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NIM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3) 운용 부문에서도 상반기에 NIM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Markets 부문의 여신 성장 속도가 증시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

2년 vs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HTM 잔액 추이

(십억 달러)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260.6	293.4	270.1	272.1	268.5	(1.3)	3.0
Bank of America	541.3	531.4	522.7	514.7	505.8	(1.7)	(6.6)
Citigroup	206.1	197.1	189.8	178.5	167.9	(5.9)	(18.5)
Wells Fargo	221.5	214.2	208.0	204.1	198.6	(2.7)	(10.3)
PNC Financial	75.2	73.2	70.1	72.0	78.4	8.8	4.2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시사점 3. 대출 성장률 – 자본시장 중심 성장 지속 + C&I 대출 성장 기대 일부 생생

2Q 중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1Q에 이어 자본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 5개 은행 합산 기준 2Q 대출성장률은 10.1% y-y, 2.8% q-q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분기와 유사한 속도. 자본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Markets 대출 수요가 이어진 것이 주요. 이와 같은 견조한 대출 성장은 올해 연간 이자이익의 견조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가계대출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지속. 1)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크로 불확실성 및 물가 상승 부담을 야기하였고, 2) 이에 따른 시중 금리 상승은 높은 대출 금리로 위축된 대출 수요를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생각. 대부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낮게 이어진 가운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이 상반기 가계 대출 성장에 주효했던 것으로 언급.

한편, 1Q와 다른 점은 C&I (Commercial and Industrial: 상공업) 기업대출 부문에서의 회복 가능성이 일부 나타났다는 점. C&I 대출 데이터를 제공하는 PNC Financial은 관련 대출이 16.7% y-y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 이와 관련해서 PNC Financial은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며 신규생산을 위한 자금 수요가 높은 대출 성장률로 이어진 것으로 언급. 당일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와 같은 C&I 대출의 고성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동사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 이는 1) 현재의 높은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 2) 2Q 중 대출 성장 중 일부는 대기 수요 혹은 3) 선제적인 차입에 따른 것일 수 있기 때문. 즉, 상황이 일부 호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추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결국 향후 대출 성장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가능.

1) 자본 시장 관련 대출의 지속 가능성은 증시가 주된 변수라는 관점에서 은행 및 시장 참여자 모두 과도한 낙관론보다는 보수적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생각됨.

2)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카드 리볼빙 잔액 증가가 주된 동력원이나, 결국 주담대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수반되어야 할 전망. 다만, 현재의 물가 상황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부담 요인.

3) C&I 기업 대출의 일부 성장은 긍정적. 이는 현재의 매크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환경 하에서도 기업 활동 증가에 따른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매크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은행들의 이자이익 중심 실적 개선의 기회가 여전히 크다고 생각.

은행별 대출 잔액 추이

(십억 달러)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1,313.1	1,325.4	1,339.4	1,339.4	1,380.7	1,417.5	1,461.1	1,486.1	1,521.3	2.4	10.2
Bank of America	1,051.5	1,059.7	1,081.0	1,093.7	1,128.5	1,153.0	1,170.9	1,189.5	1,216.5	2.3	7.8
Citigroup	679.6	686.5	688.0	690.7	712.2	725.0	737.0	755.2	785.0	4.0	10.2
Wells Fargo	917.0	910.3	906.4	908.2	916.7	928.7	955.8	996.0	1,026.5	3.1	12.0
PNC Financial	319.9	319.6	319.1	316.6	322.8	325.9	327.9	350.9	363.2	3.5	12.5
합계	4,281.1	4,301.5	4,333.8	4,348.7	4,460.8	4,550.1	4,652.8	4,777.8	4,912.5	2.8	10.1
JP Morgan 제외	2,968.0	2,976.1	2,994.4	3,009.3	3,080.1	3,132.7	3,191.7	3,291.6	3,391.2	3.0	10.1

참고: 분기 평균 잔액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PNC Financial: C&I 대출 잔액 추이

(십억 달러)	2Q25	3Q25	4Q25	1Q26	2Q26
PNC Financial	192	196	199	211	224
% y-y					16.7

참고: C&I는 Commercial & Industrial 부문

자료: PNC Financial,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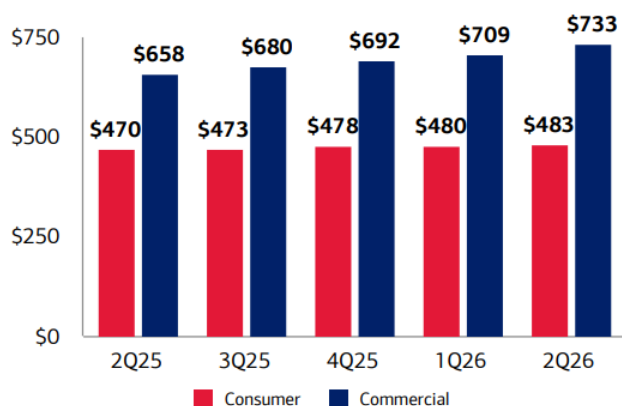
미국 주요 은행 부문별 대출 분기 순증액

(십억 달러)	JP Morgan	Bank of America	Wells Fargo	PNC Financial
Retail Banking	4.8	(1.1)	2.5	(0.4)
CIB	17.1	20.2	17.1	12.5
WM	16.3	8.1	2.7	0.2

참고: BofA CIB는 Global Banking과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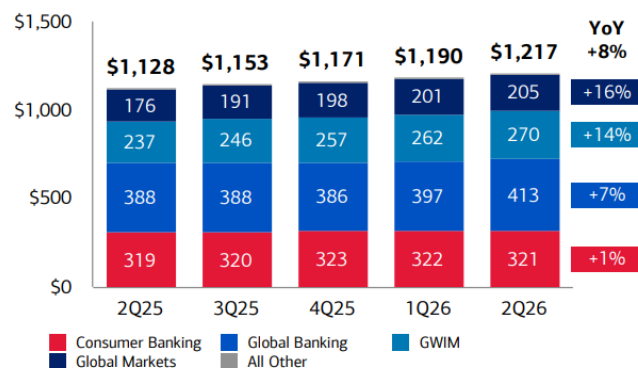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BofA – 부문별 대출 추이 (십억달러)



자료: BofA

BofA – 업종별 대출 추이 (십억달러)



자료: BofA

시사점 4. 대손 총당금 비용 부담 감소 긍정적

은행들의 대손총당금 비용은 6.1% q-q, 12.4% y-y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손 사이클이 개선세를 이어간 점은 긍정적. 특히, Net charge-offs 금액이 1.1% y-y 소폭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Net reserve build가 일부 은행들의 대손총당금 환입까지 맞물리며 81.5% y-y의 높은 감소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 이는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라 은행들의 실질적인 총당금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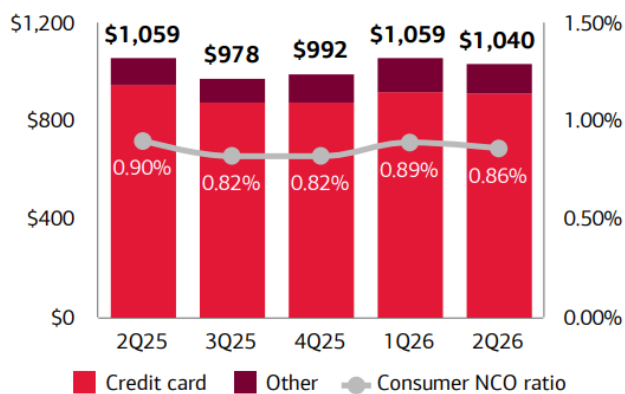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JPMorgan은 신용카드에 대한 대손비용률 가이드를 당초 3.4%에서 3.2%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음. 이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고용 시장 및 소비를 중심으로 은행들의 대손 사이클이 개선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은행별 대손 총당금 추이

(백만 달러)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Net charge offs	2,231	2,087	2,364	2,332	2,410	2,593	2,514	2,316	2,366	2.2	(1.8)
Net reserve build	821	1,024	267	973	439	810	2,141	191	149	(22.0)	(66.1)
Total provisions	3,052	3,111	2,631	3,305	2,849	3,403	4,655	2,507	2,515	0.3	(11.7)
Bank of America											
Net charge offs	1,533	1,534	1,466	1,452	1,525	1,367	1,287	1,409	1,412	0.2	(7.4)
Net reserve build	(25)	8	(14)	28	67	(72)	21	(72)	(46)	n/a	n/a
Total provisions	1,508	1,542	1,452	1,480	1,592	1,295	1,308	1,337	1,366	2.2	(14.2)
Citigroup											
Net charge offs	2,283	2,172	2,242	2,459	2,234	2,214	2,190	2,208	2,404	8.9	7.6
Net reserve build	193	503	351	264	638	236	30	597	118	(80.2)	(81.5)
Total provisions	2,476	2,675	2,593	2,723	2,872	2,450	2,220	2,805	2,522	(10.1)	(12.2)
Wells Fargo											
Net charge offs	1,301	1,111	1,211	1,009	997	942	1,046	1,100	876	(20.4)	(12.1)
Net reserve build	(65)	(46)	(116)	(77)	8	(261)	(6)	35	38	8.6	375.0
Total provisions	1,236	1,065	1,095	932	1,005	681	1,040	1,135	914	(19.5)	(9.1)
PNC Financial											
Net charge offs	262	286	250	205	198	179	162	253	226	(10.7)	14.1
Net reserve build	(27)	(43)	(94)	14	56	(12)	(23)	(43)	(35)	n/a	n/a
Total provisions	235	243	156	219	254	167	139	210	191	(9.0)	(24.8)
합계											
Net charge offs	7,610	7,190	7,533	7,457	7,364	7,295	7,199	7,286	7,284	(0.0)	(1.1)
Net reserve build	897	1,446	394	1,202	1,208	701	2,163	708	224	(68.4)	(81.5)
Total provisions	8,507	8,636	7,927	8,659	8,572	7,996	9,362	7,994	7,508	(6.1)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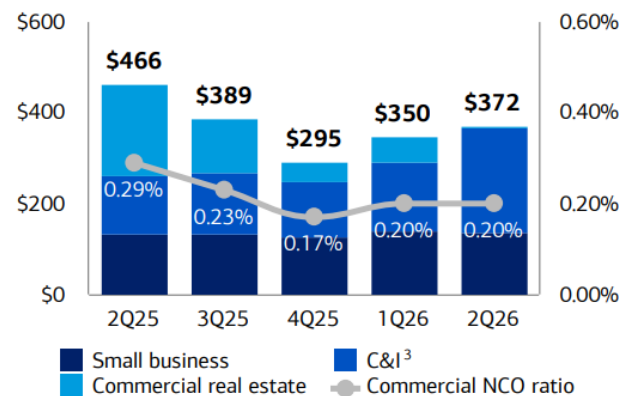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BofA 소매금융 NCO (백만 달러)



자료: Bank of America

BofA Commercial NCO (백만 달러)



자료: Bank of America

시사점 5. 리테일뱅킹 안정적 성장 위에 CIB의 고성장

2Q 중 주요 은행들의 실적 상 특징은 리테일뱅킹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기반 위에 CIB의 고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은행들의 이익 믹스 변화. 1) 리테일뱅킹의 매출 및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8.8% 및 11.1% y-y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한 가운데, 2) CIB부문이 23.9% 및 42.2% y-y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3) 그 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뱅킹과 CIB부문의 비율은 1년 전인 2Q25에는 47:53으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으나, 2Q26에는 41:59로 CIB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 특히, CIB 부문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JP Morgan과 BofA가 타사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시현.

은행별 리테일뱅킹 매출 추이

(백만 달러)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18,847	19,473	19,396	19,568	20,272	3.6	7.6
Bank of America	10,813	11,166	11,201	11,049	11,336	2.6	4.8
Wells Fargo	9,228	9,650	9,571	9,998	10,288	2.9	11.5
PNC Financial	3,756	3,806	3,759	3,968	4,518	13.9	20.3
합계	42,644	44,095	43,927	44,583	46,414	4.1	8.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리테일뱅킹 순이익 추이

(백만 달러)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5,169	5,009	3,642	4,976	5,311	6.7	2.7
Bank of America	2,973	3,437	3,304	3,060	3,281	7.2	10.4
Wells Fargo	1,863	2,185	2,128	1,941	2,290	18.0	22.9
PNC Financial	1,359	1,324	1,241	1,327	1,747	31.7	28.6
합계	11,364	11,955	10,315	11,304	12,629	11.7	11.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CIB 매출 추이

(백만 달러)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19,535	19,878	19,375	23,379	24,853	6.3	27.2
Bank of America**	11,670	12,469	11,542	13,396	14,258	6.4	22.2
Wells Fargo	4,673	4,879	4,616	5,278	5,425	2.8	16.1
PNC Financial	2,720	2,909	3,066	2,982	3,283	10.1	20.7
합계	38,598	40,135	38,599	45,035	47,819	6.2	23.9

참고: *JP Morgan은 기존 Commercial Banking 및 CIB 부문 합산 기준

**Bank of America는 Global Banking,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CIB 순이익 추이

(백만 달러)	2Q25	3Q25	4Q25	1Q26	2Q26	QoQ (%)	YoY (%)
JP Morgan*	6,650	6,901	7,268	9,044	9,678	7.0	45.5
Bank of America**	3,227	3,773	3,070	4,094	4,672	14.1	44.8
Wells Fargo	1,737	1,966	1,639	1,809	2,329	28.7	34.1
PNC Financial	1,229	1,459	1,514	1,400	1,588	13.4	29.2
합계	12,843	14,099	13,491	16,347	18,267	11.7	42.2

참고: *JP Morgan은 기존 Commercial Banking 및 CIB 부문 합산 기준

**Bank of America는 Global Banking,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6. 자본비율 하락세 둔화 – ROE 급등 및 견조한 주주환원 지속

5개 은행들의 CET-1 비율은 전분기 대비 평균 7bp 하락하며 하락세가 둔화. 높은 주주환원율이 2Q에도 지속되며 RWA가 8.1% y-y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지만, CIB 부문의 이례적인 실적 개선과 Visa 지분 매각 이익이 맞물리며 ROE가 15%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 자본비율 하락 속도 둔화에 주효했던 것으로 생각.

한편, 2Q 중 주주 환원 규모를 발표한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평균적으로 64.9%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지속. 참고로 이는 지난 분기 94.4%대비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자본비율 하락세 둔화 요인과 동일한데, CIB부문의 이례적인 실적 호조 및 Visa 지분 매각 이익 등이 주주환원율 산출 시 분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 참고로, JP Morgan의 Visa 지분 매각이익 효과를 제외할 경우, 합산 기준 주주환원율은 70.4%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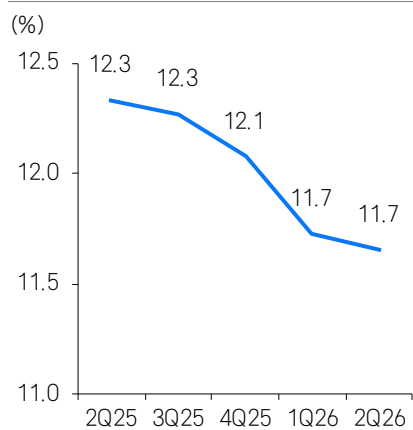
더 나아가, 은행들은 지난 6월 말 Stress test 발표 이후 주당 배당금 상향을 발표. 이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강화 기조의 지속을 의미.

5개 은행 주주 환원 Breakdown (2Q26)

(백만 달러)	총 주주 환원	배당	자사주 매입	당기순이익	주주환원율 (%)
JP Morgan	10,200	4,000	6,200	21,155	48.2
Bank of America	8,000	2,000	6,000	9,074	88.2
Citigroup	5,000	1,000	4,000	5,831	85.7
Wells Fargo	4,400	1,400	3,000	6,407	68.7
PNC Financial	1,300	700	600	2,040	63.7
합계	28,900	9,300	19,800	44,507	64.9
JP Morgan 일회성 제외 기준	28,900	9,300	19,800	41,064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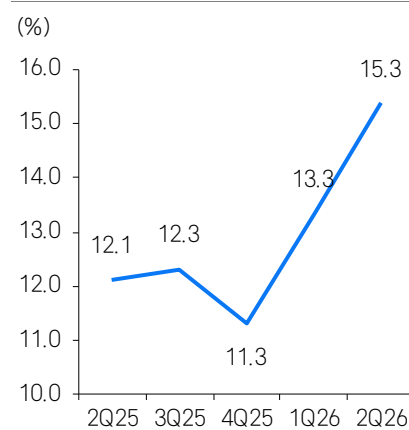
자료: 각 사,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평균 CET-1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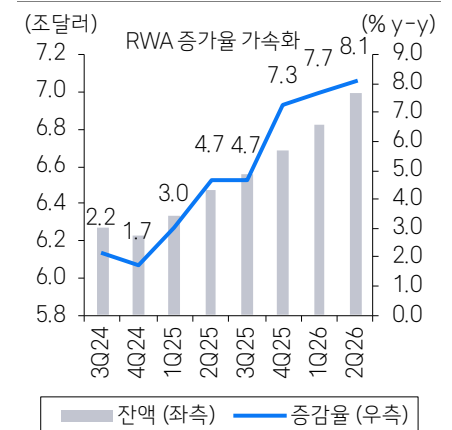
참고: 5개 은행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평균 ROE 추이



참고: 5개 은행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합산 RWA 추이



참고: 5개 은행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II. 실적 컨퍼런스 콜의 화두 – 지속 가능성

미국 은행들은 실적 발표를 전후하여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건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주의 추가 상승세는 제한적. 금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 비춰볼 때,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사이의 괴리는 2Q 호실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이슈 1. CIB 중심 실적 개선 지속 가능성에 집중된 질문 – 하반기 전망은 유보적

은행들의 호실적을 견인한 것은 CIB, 그 중에서도 Trading 부문. 이는 증시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유례 없을 정도로 은행 실적에 우호적이었던 상반기의 시장 상황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

JP Morgan –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지만, 지속 가능 기간은 불분명”

이에 대해 JP Morgan의 1) Dimon 회장은 가장 좋은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문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모른다고 언급하였고, 2) CFO는 2Q가 특히 여러 사안들이 겹치는 이례적인 환경이었음을 언급. 특히, JP Morgan의 CFO는 2Q 중 이례적 환경 요인으로 1) SpaceX와 같은 대형 IPO 효과, 2) 한국 증시 급등 및 높은 변동성 관련 영향, 3) 아시아 증시 상 나타난 다양한 activity, 4)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시로 들었음. 물론,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계학적 관점에서 반드시 반복될 확률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

Citi Group – 26년 ROTCE 가이드선스 10~11% 유지가 초래한 논란

한편, Citi Group은 상반기 중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26년 ROTCE 가이드선스를 종전의 10~11%로 유지하며 논란을 초래. 동사는 올해 상반기 중 ROTCE가 13%를 기록하였는데, 기존 연간 가이드선스를 유지한 것. 이에 역설적으로 연간 가이드선스 달성을 위해서는 동사의 하반기 ROTCE가 단순 계산으로 8~9%까지 낮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당일 컨퍼런스 콜에서는 하반기 실적 악화를 내포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응답이 수 차례 이어졌음. 이에 대해 동사는 1) 과거에도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20%가량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을 쉽게 볼 수 있었고, 2) 인력 구조조정이 상반기보다 더 크게 이뤄질 경우 관련 비용 인식이 늘어날 수 있는 등의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3) 더 나아가, 기존의 가이드선스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하반기 실적의 악화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며, 4) 동사는 중기적 수익 확보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경우 현재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 강조.

실제로 과거 3년간의 미국 은행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약세를 보인 것이 사실. 자본 시장의 호조 및 은행들의 NIM과 대출 성장률 반등이 동반된 25년 하반기에도 실제 하반기 이익은 상반 기대비 소폭 감소. 특히, Citigroup의 이익 감소 폭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만큼, 동사 또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상반기의 이례적인 실적 호조를 연간 가이드언스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 이는 최고 경영진의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혹은 전략적 접근 역량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은행별 반기 순이익 추이

(백만달러)	1H23	2H23	1H24	2H24	1H25	2H25	1H26
JP Morgan	27,094.0	22,726.0	31,568.0	26,903.0	29,630.0	27,418.0	37,649.0
Bank of America	15,569.0	9,797.0	13,456.0	13,517.0	14,530.0	15,979.0	17,658.0
Citi group	7,521.0	1,532.0	6,588.0	6,094.0	8,083.0	6,223.0	11,616.0
Wells Fargo	9,929.0	8,065.0	9,529.0	10,193.0	10,388.0	10,950.0	11,660.0
PNC Financial	3,194.0	2,227.0	2,821.0	3,100.0	3,108.0	3,828.0	3,800.0
합계	63,307.0	44,347.0	63,962.0	59,807.0	65,739.0	64,398.0	82,383.0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이슈 2. AI와 은행 – 은행은 신규 사업 기회 기대. 한편, 관련 혜택은 고객에게 돌아갈 전망

AI가 증시 내 가장 뜨거운 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다각도로 이뤄졌음.

JP Morgan – AI 도입에 따른 조직 슬림화 등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결국 혜택은 고객에게

상반기 중 미국 금융업권 내 AI관련 화두 중 하나는 Block (구 Square)의 AI 도입과 이로 인한 인력 40% 감축. 이후 Block은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AI 도입이 1) 판관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2) AI를 활용하여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인.

당일 컨퍼런스 콜에서 JP Morgan 또한 AI 도입을 통해 유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이에 Dimon 회장은 AI 도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 다만, Block과는 일부 전략적 접근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

1) 인력 감축보다는 재배치

질의자가 언급한 인력 축소 우려도 제기 가능하지만, JPMorgan은 효율성이 제고되는 영역에서의 인력을 다른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인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

특히, JP Morgan은 과거 25년간 금융의 디지털화 속에서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였음을 강조. 컴퓨터의 도입으로 수기 업무가 자동화되고, 고객과의 접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은 물론, 상당 수의 업무가 이제는 사람을 거치지 않는 자동화가 되었음. 하지만, JP Morgan의 HR 전략 상 큰 틀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언급.

2) 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제고 혜택은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귀속

조직 슬림화와 별개로, AI의 도입 및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회의 증가는 최종적으로 기업이 아닌 고객에게 귀속될 것을 언급. AI도입은 은행의 비용과 오류 발생율을 낮추는 등 ROE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은행의 ROE가 현재의 10~20% 수준에서 가령 50~60%로 개선되기보다는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임을 주장.

참고로, 은행의 지난 20여년간 디지털화 속에서의 수익성 변화를 보더라도 이러한 Dimon 회장의 언급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 은행은 컴퓨터 및 자동화 기기, 인터넷 등의 도입으로 인해 업무의 자동화를 상당 부분 이뤄낸 것은 물론 모바일 챗봇 등의 도입이 과거 인적 자원 투입이 불가피했던 업무까지도 대체하고 있음. 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일련의 변화 속에서 은행들의 ROE는 높아져야 함. 그러나, 실제 은행들의 ROE는 여전히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낮아진 상황. 이는 이러한 자동화의 혜택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금융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졌기 때문. 즉, AI가 도입되어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

BofA – AI로 인한 두 가지 기회

BofA의 CFO는 AI 도입 과정에서 은행은 크게 두 가지 기회가 존재한다고 언급.

1) 대규모 투자 중개 – 매출 성장 기여

우선 은행 입장에서 매출 확대 기회를 기대 가능. 최근 시장의 최대 화두는 미래의 AI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물론,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투자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 특히, 이들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중개 역량을 보유한 곳은 결국 대형 IB와 대형 은행. BofA는 IB 역량 및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

2) AI 도입에 따른 업무 개선 효과

또 다른 기회는 업무 개선 효과. 실제로 BofA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2Q26부터 IR 자료에 추가하여 제공. 동사는 AI 도입을 통해 비용 효율성, 리스크 관리 등 영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

이슈 3. 매크로 전망 – 양호할 것으로 기대

매크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질문들도 일부 개선되었음.

1. 금리 전망 – 하반기 1회 인상인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소통하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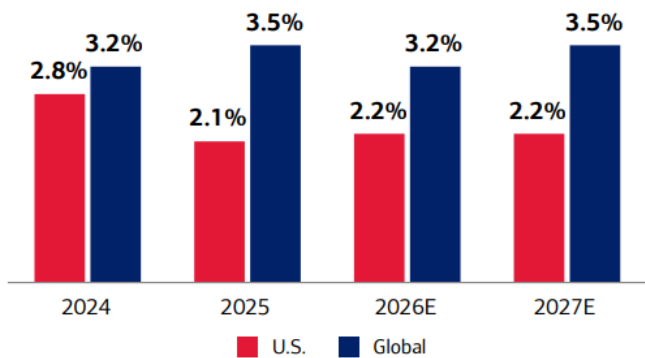
은행들은 하반기 NIM 및 NII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하반기 1회 금리 인상을 base case 시나리오로 소통. 다만,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하반기 1회 인상을 차용한 것으로, 은행들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추세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전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 실제로 BofA의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재차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을 IR 자료 중 일부를 할애해서 설명.

2. 금리보다는 고용, 그리고 경기 회복에 보다 무게

은행들은 향후 실적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수보다는 경기 회복 및 이에 따른 양질의 대출 수요 회복 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설명. 즉, NIM의 방향성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양질의 대출 성장으로 인해 NII가 증가할 전망이다, 카드의 대손 비용률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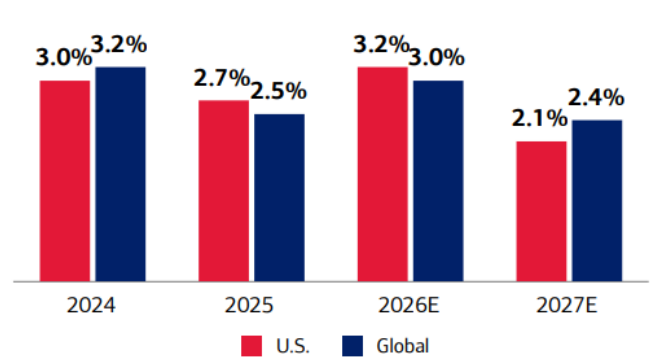
특히, 이의 근간은 고용 지표. 일각에서는 금번 경기 확장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downturn을 우려. 하지만,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며, 이러한 추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소비자 심리 및 소비자의 건전성 또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

BofA – 미국 및 글로벌 실질 GDP 전망



자료: BofA

BofA – 미국 및 글로벌 CPI 인플레이션 전망



자료: BofA

26년 실적 개선 컨센서스 – 매크로 환경 변화 불구 18% 이익 개선 전망

26년 은행 실적 컨센서스는 당기순이익 기준 18.3% y-y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vs 4월 기준 컨센서스 11.1% 성장대비 개선). 1) 매출 성장률은 10.8%로 전년 4.1%대비 6.7%p 상승하고, 2)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8.3%로 전년 5.1%대비 13.2%p 높으며, 3) EPS 증가율 또한 23.6%로 전년 11.7%를 11.9%p 상회.

즉, 컨센서스는 1) 올해 은행들의 매출 성장 지속과 2) 영업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보다 빠른 이익 성장, 3) ROTCE의 개선세 지속, 4)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한 견조한 EPS 증가를 내포.

결론적으로,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라 은행주는 은행주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의 완화와 더불어 펀더멘털의 개선과 이에 기반한 주주환원의 추가 제고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 가능.

5대 은행 매출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128,695	158,104	177,556	182,447	2.8	206,002	12.9
Bank of America	99,838	98,581	105,856	113,097	6.8	123,680	9.4
Citigroup	78,183	78,462	80,945	85,225	5.3	95,693	12.3
Wells Fargo	73,933	82,597	82,296	83,699	1.7	88,508	5.7
PNC Financial	21,120	21,490	21,555	23,099	7.2	26,271	13.7
합계	401,769	439,234	468,208	487,567	4.1	540,154	10.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대 은행 순이익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37,676	49,552	58,471	57,048	(2.4)	67,471	18.3
Bank of America	32,416	26,515	26,973	30,509	13.1	35,102	15.1
Citigroup	17,690	9,228	12,682	14,306	12.8	20,248	41.5
Wells Fargo	13,322	19,142	19,722	21,338	8.2	23,051	8.0
PNC Financial	6,113	5,647	5,921	6,936	17.1	8,086	16.6
합계	107,217	110,084	123,769	130,137	5.1	153,958	18.3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대 은행 EPS 추이 및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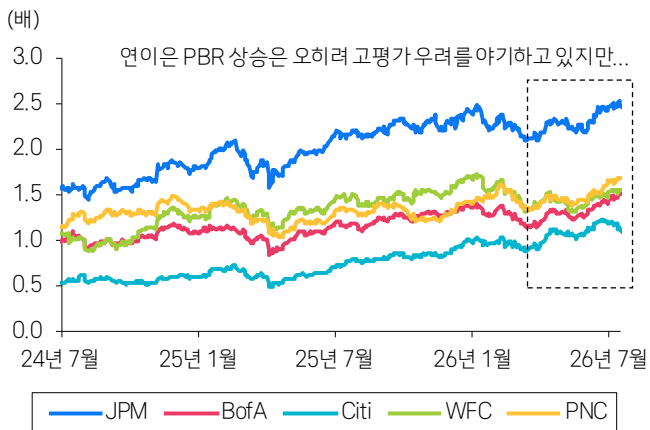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12.08	16.22	19.74	20.01	1.4	24.30	21.5
Bank of America	3.19	3.07	3.19	3.81	19.4	4.63	21.4
Citigroup	7.00	3.99	5.95	6.97	17.1	11.07	58.8
Wells Fargo	3.27	4.82	5.38	6.27	16.5	7.18	14.5
PNC Financial	13.87	12.79	13.77	16.59	20.4	19.13	15.3
합계	39.41	40.89	48.03	53.65	11.7	66.31	23.6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주환원 강화 기조 지속 – 높은 불확실성 시대에 주가 하방을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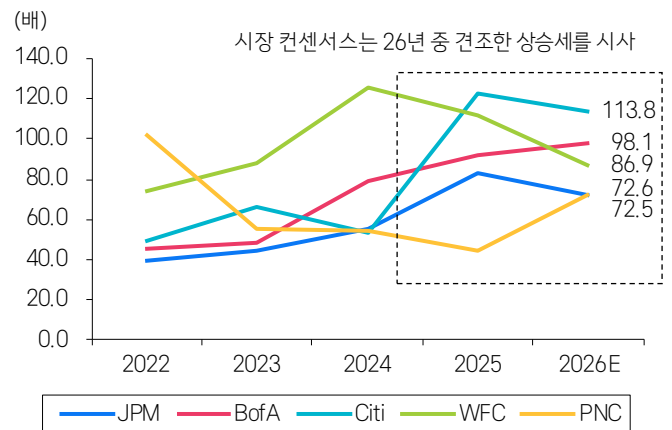
최근의 높은 증시 변동성 속에서 은행은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주가 하방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음에 초점 필요. 실제로 미국 은행들의 PBR은 최근 증시 조정 속에서도 여전히 전고점 수준에 재차 도달해 있는 상황. 이는 1) 은행들의 견조한 실적 및 수익성 개선과 2) 향후 매크로 리스크 완화 구간에 서 은행업 사이클 개선의 본격화에 대한 기대의 반영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3) 은행의 실적 개선이 주주환원으로 귀결되며 주가의 하방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실제로 은행들은 주주환원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올해도 은행들은 높은 이익 성장 속에서도 주주환원율 컨센서스가 70~110%의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음.

미국 은행 PBR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은행 주주환원율 추이 및 2026E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7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